DOI http://dx.doi.org/10.21792/trijpn.2020..91.018

한중일 고양이의 명칭과 별칭이 가지는 의미*

노 성 환**

日中韓の猫の名称と別称は、次のような方法により誕生していた。第一は泣き声により韓国は「ニャオイ」、中国は「ミャオ」から「マオ」に、日本は「ネウ」と「コ」を付けたものを略して「ネコ」となった。第2は、他の動物の名前で呼ぶという点である。韓国人は猫蝶思想によって「蝶」、中国人は蝶またはセミを捕まえて食べるという意味で衙蟬、喲蝶、日本は虎のような動物という意味で「トラ」と言った。第三は形態が獅子、虎、山猫に似ていることから、小狻猊、家虎、家狸、狸奴などの別称が生まれ、その中、家狸は韓日両国が共通して使用した。第四に習性と性格によるもので、韓国は鼠を捕るのが上手で奇怪な動物という意味で「高伊」または「怪様狸」とも呼ばれ、中国は蒙貴、田鼠将とも呼ばれた。それに対し日本は「鼠子待」、「鼠好む」、「睡獣」、「寝好む」、「寝小魔」などで見られるように鼠を捕らえ、よく眠れる動物というイメージが強い。第五は日本にのみ適用されるもので、「寝高麗」のように故郷(高麗)を表す言葉から派生したと見る認識もあった。このように日中韓の猫の名称と別称は、以上の5つの方法に基づいて誕生していた。

キーワード：高伊、蝶、虎、夢貴、寝高麗、猫蝶思想
(고이, 나비, 호랑이, 몽귀, 네코마, 묘접사상)

1. 머리말

고양이는 개와 비교하여 붙임성이 없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살며, 가축이라 하지만 야성의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순성을 가진 동물이다. 그리고 불식간에 오랫동안 모습을 감추었다가 불쑥 나타나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7S1A6A3A01079869)

**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nosh1@hanmail.net

성격으로 인해 민속학에서는 고양이를 이승과 이계(異界)와 교섭을 가진 동물이며, 또 타계에서 온 사자와 같은 존재로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고양이를 두고 나라마다 그 명칭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유럽 언어에서는 대체로 그 어원은 라틴어 「Catus」에 두는 것 같다. 가령 영어의 「cat」, 네덜란드어와 덴마크어의 「kat」, 스웨덴어 「katt」, 이탈리아어 「catto」, 그리스어의 「katos」, 독일어 「katze」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에 비해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그것을 한자로 표기할 때는 3국 모두 「묘(猫)」라고 쓰지만, 실제로 그것을 부를 때는 한국인들은 「고양이」라고 하고, 중국인들은 「마오」라고 하며, 일본인들은 「네코」라 한다. 이처럼 말꼴에서 보듯이 각기 어원을 달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각국의 고양이는 별칭을 가지기도 한다.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이란 말 이외에 「나비」라 하고, 또 일본인은 「도라」라고 한다. 이것처럼 중국도 「마오」 이외에도 「오원」, 「몽귀」 등 많은 별칭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고양이의 명칭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어학에서 행하여졌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병근,[1] 홍윤표,[2] 이근열[3] 등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언어학자인 만큼 고양이에 대한 어원과 그 말이 어떻게 발전을 하여 현재의 「고양이」라는 말이 탄생하였는지에 대해 폭넓은 자료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 고양이라는 어휘의 변천사를 한눈으로 알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은 고양이의 명칭과 별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치 그 문제는 인문학도들에게 맡기고 있는 모양새이다. 고양이의 명칭과 별칭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반영되어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고양이 문화를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없는

---

1) 이병근(2004) 「고양이의 어휘사」『어휘사』 태학사, pp.105-132.

2) 홍윤표(2005) 「'살쾡이'와 '고양이'의 어원」『새국어소식(10)』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nkview/nknews/200510/87_1.html(검색일:2020.06.28)

3) 이근열(2013) 「부산 방언의 어원 연구(1)」『우리말연구』 35권, 우리말학회, pp.189-190.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전통사회의 지식인들이 그것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어놓았을 것이다. 이것 또한 당시 고양이를 바라보는 관념이 투영되어 있으므로 명칭과 별칭이 가지는 의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에 본고는 동아시아 3국의 고양이의 명칭과 별칭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것들에 대해 3국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고양이에 대한 명칭과 별칭을 정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고려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 한국의 고양이와 나비

동물의 이름에는 그 동물의 울음소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부엉 부엉”하고 운다고 해서 부엉이가 되었고, “개골개골”하고 운다고 하여 개구리가 되었으며, “뻐꾹 뻐꾹”하고 운다고 하여 뻐꾸기가 탄생했다.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멍멍이, 꿀꿀이도 그렇게 태어났을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고양이의 다른 명칭인 「야옹이」는 “야옹야옹” 혹은 “냐옹 냐옹”하고 운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임이 틀림없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길에서 주운 고양이를 「길냥이」이라고 한 것은 「길」과 「냐옹이」를 합친 것을 다시 편하게 줄인 말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순수한 말일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야옹이는 고양이라는 정식 명칭의 성립에도 살아남았다. 이병근을 비롯한 많은 우리의 국어학자들은 고양이의 어원을 『고려사』에 있는 「고이(高伊)」에서 찾았다. 즉, 1713년 남극관(南克寬: 1689-1714)이 쓴 『몽예집(夢囈集)』에 「고려사에 말하기를 방언으로 고양이를 불러 ‘고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단지 소리가 조금 빨라져서 합해 한 자로 되었다(高麗史云方言呼猫為高伊 今猶然但声稍疾合為一字)」란 기록이 있다.[4] 이처럼 고양이의 옛 이름은 ‘고이’였다. 이것이 「괴」가 되고, 그 후 「앙이」가

4) 홍윤표(2015) 앞의 글 참조. https://www.korean.go.kr/nkview/nknews/200510/87_1.html(검색일:2020.06.28)

붙어 「괴앙이」가 되었다. 지역 방언에서 굉이(창원), 갱이(창원, 마산), 겡이(동래), 괭이(서울, 청주 등)라 한 것은 바로 여기서 파생된 것이다.[5] 「괴앙이」가 다시 「괴양이」가 되고,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러 「고양이」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6]

여기서 「앙이」와 「양이」는 고양이의 울음소리 「야웅 야웅」에서 유래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양이는 「고이」와 「야웅이」의 합성되어 생겨난 셈이다. 한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방언에 고양이를 고양(古羊)이라고 한다며, 특히 고양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으로 알려진 변상벽(卞相璧)을 사람들이 변고양(卞古羊)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했다.[7]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약용 당시 고양이를 고양(古羊)이라고 한 지역 방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양이의 최초 표기라 할 수 있는 「고이」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오늘날 국어학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18세기 실학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 그의 저서 『이재유고(頤齋遺藁)』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 몽귀(蒙貴)에서 유래, 고려 때, 원나라의 몽을 휘해서 빼버려 귀라 불렀고, 그 귀는 '괴'로 변화하여, '고이'가 되었다.[8]

여기서 보듯이 황윤석은 우리의 고양이 명칭의 기원을 중국에서 찾고 있다. 즉, 중국인들이 고양이를 '몽귀'라 하였는데, 이것에서 '몽'을 빼어 귀(貴)가 되었고, 그것이 「괴」에서 「고이」로 변화하였다는 설명이다. 그의 설명대로 몽귀- 귀- 괴- 고이로 변화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양이의 어원을 「고이」에서 찾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서 고양이를 귀할 「貴」 자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5) 이상인(1941) 「고양이의 시골말」『한글(9)』 한글학회, p.568.

6) 이병근(2004) 「고양이의 어휘사」『어휘사』 태학사, p.117.

7) 『다산시문집』(제14권): 卞尚璧特以畫貓称。世謂之卞古羊。方言貓曰古羊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dir(검색일:2020.06.28)

8) 黃胤錫『頤齋遺藁』:又呼蒙貴, 蓋元時諱蒙去之, 只呼貴, 貴又転괴, 故高麗史呼高伊

어찌하여 고양이는 귀한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 『면양잡록(沔陽雜録)』에서 천자가 거행하는 대사(大蜡)[9]가 여덟인데, 그 중 고양이 신을 맞이하는 것은 들쥐를 잡아먹기 때문이고, 호랑이 신을 맞이하는 것은 멧돼지를 잡아먹기 때문이니, 각각의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올린다고 상세히 설명했다.[10] 즉, 고양이는 농사에 해를 끼치는 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팔 대사 중 하나로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기록이 조재삼(趙在三: 1808-1866)의 『송남잡지(松南雜識)』에도 있었다. 즉, 그것에 의하면 「식전(食田)의 쥐를 잡기 때문에 몽귀 즉, 고양이를 맞이한다(又蒙貴即蜡礼迎猫, 為食田鼠也)고 했다. 즉, 『예기(礼記)』에서 언급하는 사례(蜡礼)에 고양이 신을 맞이하여 제사하는 것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고양이는 곡식에 해를 주는 들쥐를 잡아먹는 고마운 존재이었으며, 그러한 뜻이 있었기에 『고려사(高麗史)』에서도 높을 '고(高)'가 들어있는 「高伊」라고 표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고려에는 「고이」라는 지명이 전라도에 있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오늘날 고흥군의 옛 이름이 고이부곡(高伊部曲)인데, 「고이」는 방언으로 고양이를 뜻하는 말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国輿地勝覧)』(제40권)에 의하면 그곳이 고흥이 된 것은 이곳 출신 유비(柳庇: 1257-1329)가 통역으로 원나라에 간 공이 있었기 때문에 고흥으로 이름을 고치고, 현으로 승격시키고 감무를 두었다고 했다.[11]

고흥이 무엇 때문에 고양이 뜻을 가진 「고이부곡」으로 불렸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결코 서민의 동물이 아니었다. 왕을 비롯한 귀족들이 키웠던 애완동물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고양이가 높을 "고"와 귀할 "귀"를 사용하여 이름이 붙여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

9) 대사(大蜡): 제사 이름으로, 한 해가 끝날 때 農神을 비롯한 여러 신에게 다음해에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기원하는 제사이다.

10) 박지원(2016) 『면양잡록』 권3, 당진문화원, p.84.

11) 『新增東国輿地勝覧』(제40권): 本長興府高伊部曲(高伊者方言猫也). 高麗忠烈王十一年土人柳庇(後改名清臣) 以訳語通事于元有功改名高興陞為県置監務本朝(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dir(검색일:2020.06.28.)

그 밖에 중국의 영향으로 보이는 고양이의 별칭으로는 가리(家狸)와 리노(狸奴) 그리고 오원(烏円)이 있었다. 성호 이익(李瀷: 1681-1764)은 『성호사설(星湖僿説)』에서 「고양이를 가리라 한다」고 했다.[12] '가리'와 '리노'는 살쾡이와 관련이 있다. '가리'는 고양이를 야생의 살쾡이(狸)와 구분하기 위해 '가리'라 하였고, '리노'는 살쾡이와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약용은 주인집 고기를 훔쳐 먹고 그릇을 깨뜨리는 남산골 고양이를 묘사한 「리노행(狸奴行)이라는 장편의 한시를 지은 일이 있다.[13] 여기서도 '리노'는 고양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오원도 조선사회에서는 유행했던 모양이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이름을 오원자라 짓고, 「오원자부(烏円子賦)」를 지었다.[14] 그리고 조구명(趙亀命: 1693-1737)은 「오원자전(烏円子伝)」을 썼고,[15] 유본학(柳本学)은 고양이를 의인화한 「오원전(烏円伝)」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다.[16] 이처럼 오원도 고양이를 대신하는 이름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자.

한편 고양이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쥐를 잡아먹는 고맙고 귀한 동물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좋지 못한 이미지도 있었다. 심지

---

12) 『星湖僿説』(제6권) 「万物門」: 猫者家狸也(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dir (검색일:2020.06.28)

13) 『茶山詩文集』(제5권) 詩: 南山村翁養貍奴. 歲久妖兇学老狐. 夜夜草堂盜宿肉. 翻項覆瓿連觴壺. 乘時陰黒逞狡獪. 推戸大喝形影無. 呼灯照見穢跡徧. 汁滓狼藉盎入膚. 老夫失睡筋力短. 百慮皎皎徒長吁. 念此貍奴罪悪極. 直欲奮剣行天誅. 皇天生汝本何用. 令汝捕鼠除民痛. 田鼠穴田蓄稗稊. 家鼠百物靡不偸. 民被鼠割日憔悴. 膏焦血涸皮骨枯. 是以遣汝為鼠帥. 賜汝権力恣磔刳. 賜汝一双熒煌黄金眼. 漆夜撮蚤如鳧雛. 賜汝鉄爪如秋隼. 賜汝鋸歯如於菟. 賜汝飛騰博撃驍勇気. 鼠一見之凌兢俯伏恭献躯. 日殺百鼠誰禁止. 但得観者嘖嘖称汝毛骨殊. 所以八蜡之祭崇報汝. 黄冠酌酒用大觚. 汝今一鼠不曾捕. 顧乃自犯為穿窬. 鼠本小盜其害小. 汝今力雄勢高心計饕. 鼠所不能汝唯意. 攀檐撤蓋頹墜塗. 自今群鼠無忌憚. 出穴大笑掀其鬚. 聚其盜物重賂汝. 泰然与汝行相俱. 好事往往亦貌汝. 群鼠擁護如騶徒. 吹螺撃鼓為法部. 樹纛立旗為先駆. 汝乗大轎色夭矯. 但喜群鼠争奔趨. 我今彤弓大箭手射汝. 若鼠横行寧嗾盧(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dir(검색일:2020.06.28)

14) 『四佳詩集』(제1권) 賦類: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dir(검색일: 2020.06.28)

15) 『東谿集』(巻之五):(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dir(검색일:2020.06.28)

16) 김창용(1999) 『한국의 가전문학』 태학사, pp.1-363.

어 중국에서는 고양이를 개와 비교하여 「개는 충신이고 고양이는 간신이다(狗是忠臣, 猫是奸臣)」는 속담마저 있다.[17]

흔히 인간을 동물로 비유하여 소형과 말형이 있다고 한다. 소는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지만, 말은 그야말로 자기의 말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잘 이해해주는데, 이것을 다시 작은 동물에 비유하자면 고양이와 개라는 것이다. 개는 말과 같이 마음이 통하지만, 고양이는 그것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고양이를 개와 비교하여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사람을 개형 인간과 고양이형 인간으로 나누기도 한다.

일본 수의학자 무토 마코토(武藤真)는 개형 인간은 술을 마실 때 사람들과 어울려 시끄럽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또 개가 꼬리를 치며 애정 표시를 하는 행위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고양이형 인간은 혼자서 조용히 마시는 편이며, 독립적인 행동을 보이는 고양이의 성격을 좋아한다고 했다.[18]

일본어 연구자 이우석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감하게 한국인과 일본인을 개와 고양이에 비유한 적이 있다. 즉, 개는 등을 쓰다듬으며 좋아하는 뜻을 보이면, 즉시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그에 비해 고양이는 등을 쓰다듬어 주어도 개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냉랭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쉽게 드러내며 상대와 친해지려는 한국인을 개형의 인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꺼리며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려는 일본인을 고양이형 인간이라고 하였던 것이다.[19]

이같이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여 민족성까지 단언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에는 애교가 없고, 무리를 짓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는 고양이의 습성이 잘 드러나 있다.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고양이를 정을 주어도 쉽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냉정한 동물이라고 인식했다.

---

17) 李宏敏・劉楠・張春波(2015)『俄語教学理論与実践創新研究』神華出版社、p.88.
18) 武藤真(1994)『猫は三年の恩を三日で忘れるは本当か？ －ネコのオモシロことわざ学－』PHP研究所、p.1.
19) 이우석(2007)「개형과 고양이형 인간」『부산일보』(2007.06.12), 30면.

그러한 탓인지 이익(李瀷)은 “고양이란 성질이 매우 사나운 것이므로, 비록 여러 해를 길들여 친하게 만들었다 해도, 하루아침만 제 비위에 틀리면 갑자기 주인도 아는 체하지 않고 가버린다(猫者性至狠雖閱年擾狎而一朝違離則便成野性)고 했다.[20] 그리고 구비전승에서도 「개는 은혜를 갚을 줄 알지만, 고양이는 은혜를 못 갚는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발견되기도 한다.[21] 일본에도 그와 유사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 가령 「고양이는 3년 입은 은혜를 3일 만에 잊어버린다」는 속담이 있다.[22] 이처럼 한국과 일본에는 고양이를 은혜를 모르는 동물로 보는 인식이 있었다. 이같이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가축으로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민속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야나기다 구니오(柳田国男: 1875-1962)는 그의 수필 「도라네코의 관찰(どら猫観察)」에서 「고양이는 인간으로부터 이반하려는 경향은 실로 일찍부터 보였다. 대체로 양자를 결합하는 인연의 끈은 소, 말, 닭, 개와 같이 강인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충분히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테르링크의 파랑새와 같이 어떤 일이 있으면 원한과 복수를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받는 거동조차 있었다. 더구나 오로지 자기만을 아는 인간에게 그들이 하는 유일한 봉사는 쥐를 잡는 일밖에 없지만, 그것도 부탁하면 마지못해 하는 게으른 모습이 보였다.」고 표현했다.[23] 이처럼 고양이는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같은 관념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권호문(権好文: 1532-1587)은 『송암집(松巖集)』의 「축묘설(畜猫説)」에서 「일찍이 옛 사람에게 듣기를, “닭은 기르지만 살쾡이는 기르지 못한다 하였다(嘗聞諸古人養雞不育狸)」고 했다.[24] 이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고양이를 바라보

20) 『성호사설』(제4권), 万物門,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dir(검색일:2020.06.28)

21) 대계: 「은혜를 모르는 고양이와 삼족구(三足狗)」 조사일: 2012, 제보자: 서철원, 제보 장소: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광성3구 마을회관.

22) 武藤真(1994) 前掲書、p.22.

23) 柳田国男(1962) 「どら猫観察」『定本柳田国男集』(第22巻)、筑摩書房、青空文庫(http://www.aozora.gr.jp:검색일:2020.06.30)

24) 『송암집 속집』(제6권), 説: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dir(검색일:

는 시선이 있었던 것이다.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그의 저서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 12세기 중국 송나라 사람 손목(孫穆)이 지은 『계림유사(鷄林類事)』에 「고양이를 귀니(鬼尼)라고 한다(猫曰鬼尼)」는 내용이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다.[25]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양이를 귀신 귀(鬼)자를 써서 「귀니」라 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동물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한 해석이 1928년 김동진(金東縉)의 『사천년간 조선이어해석(四千年間朝鮮俚語解釈)』에도 있었다. 그는 고양이를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 '삵' 같기도 하면서도 모양이 괴이하다 하여 괴이할 괴(怪), 모양 양(樣), 삵 리(狸) 세 글자 음을 따서 '괴양리(怪樣狸)'인데, 이를 '고양이'라 하는 것이다.[26]

여기서 보듯이 고양이는 살쾡이와 같기도 다르기도 하여 괴이하다 했다. 즉,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쾡이와 같은 동물이라는 뜻에서 괴양이(怪樣狸)가 되었고, 그것이 고양이로 발전되었다고 한 것이었다. 그의 논지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와 같은 고양이 명칭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고양이란 농사를 망치는 쥐를 잡아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이한 동물이라는 인식이 귀니(鬼尼)라는 호칭을 낳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6,70대 이상의 사람들은 어릴 때 늦은 밤 고양이가 시끄럽게 울면 어머니와 할머니는 곧잘 고양이를 달래며 하는 말이 「살찐아. 살찐아 고기 줄께 우지마라」라 한다든지, 또는 「나비야 나비야 우지마라 쥐잡아 줄께」라고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사람들은 고양이를 고양이라 하지 않고, 살찐이 또는 나비라고 부르는 것일까?

이근열에 의하면 「살찐이」는 부산지역에서는 '살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삵 + 진 + 이'로 구성된 것으로서 삵괭이의 「삵」, 군대나

2020.06.28)

25) 『임하필기』(제19권), 文献指掌編, 鷄林類事의 方言: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dir(검색일:2020.06.28)

26) 김동진 저 · 조항범 평석(2001) 『선인들이 전해 준 어원 이야기』 태학사, p.46.

영내를 의미하는 「진(陣)」이 결합하여 생긴 말로서 삶이 집에서 길들여진 동물이라고 추정했다.[27]

그러한 가운데 그가 "그 어원이 불확실한데, 민간어원적으로 쌀집에서 쥐 피해를 막기 위해 고양이를 많이 키워서 '쌀진이'라고 한다"[28]는 민간의 해석에 더 매력을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쌀집의 쌀을 지키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쌀을 축내는 쥐들을 잡아먹고 살이 찐 고양이라는 의미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대체로 고양이의 이미지가 살이 찐 모습이며, 더구나 경상도에서는 발음으로 살과 쌀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삶이 집에서 길들여진 동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주식인 쌀을 훔쳐 먹는 쥐를 많이 잡아먹어 살이 찐 녀석이라는 뜻에서 「살찐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양이를 호양이(虎様伊)라고 표기하거나,[29] 「나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고양이가 호랑이를 닮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겠지만, 후자의 나비는 어떠한 이유에서 생겨난 것인지 추측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지금까지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있지 않다.

이것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흥미를 끄는 것 중의 하나가 랍비설이다. 고려 공민왕 때 중국에서 건너온 아라비아 상인들이 공민왕에게 랍비의 수호물이라며 페르시아 고양이를 바치자 공민왕이 "랍비야, 랍비야"하며 귀여워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30]

물론 이것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기발한 해석이다. 그 속에는 고양이의 기원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찾고, 또 고양이를 종교 지도자 랍비에 비유될 만큼 고귀한 동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

27) 이근열(2013) 앞의 논문, p.190.

28) 이근열(2013) 앞의 논문, p.189.

29) 고양이를 「虎様」이라 표현한 것은 조선후기 『북새기략(北塞記略)』의 「공주풍토기(孔州風土記)」에도 "猫曰虎様"라는 문구가 보인다.

30) 최성진(2008) 「고양이를 고양이라 못 부르고」 『한겨레21』(2008.10.0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446.html(검색일:2020.05.01)

그러나 국어학계에서는 그 나비를 날개 달린 Butterfly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가령 이근열에 의하면 고양이를 나비라 부른 것은 날개 달린 나비가 아니라 원숭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즉, 원숭이의 옛말이 「납」이었는데, 이것에다 "이"가 붙어 "납이"가 되었고, 또 다시 이것이 "나비"로 변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게 해석한 배경에는 고양이를 담을 뛰어넘거나 나무를 타는 것이 마치 원숭이처럼 재주가 많아서 원숭이(납)에 비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31] 이처럼 그는 원숭이의 옛말 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림 1〉 중국 반정숙(潘靜淑: 1892-1939)의 묘접도

이같은 해석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원숭이를 「잔나비」 또는 「잰나비」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의 해석은 그것이 왜 '납'이어야 하고, 왜 우리가 상상하는 나풀거리며 날아다니는 '나비'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우리가 고양이를 부를 때 나비를 연상할지언정 원숭이를 거의 상상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Butterfly Cat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나비는 '납'이 아니라 Butterfly의 '나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 나비는 「나불 나불 거리며 날다」는 것에서 나온 「낢이(날비)」이며, 『두

31) 이근열(2013) 앞의 논문, p.189.

시언해(杜詩諺解)』에서는 「나뵈」 또는 「나비」이었다가, 『훈몽자회(訓蒙字会)』에는 「나뵈」, 그리고 숙종 때 성립된 『시몽언해물명(時夢諺解物名)』에서는 「남이」로 쓰이다가 그 이후로는 「나븨」 혹은 「나비」로 되었다가 오늘날 「나비」로 굳어진 Butterfly일 것이다.

실제로 이상과 같은 국어학계에서 제시한 원숭이 설보다 Butterfly의 나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중국에도 고양이를 나비와 비유한 일이 일찍부터 있었다. 가령 당나라 단성식(段成式)이 편찬한 『유양잡조(酉陽雜俎)』에 「평릉성은 고담국이다. 성안에 한 마리 고양이가 있었는데, 항상 금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돈만 있으면 날아다니는 것이 마치 네발나비와 같았다(平陵城、古譚国也、城中有一貓、常帯金鎖、有銭飛若蛺蝶)는 내용이 있다.[32] 즉, 고양이를 나비에 비유하여 날아다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는 고양이의 별칭으로 「함선(銜蟬)」이나 「함접(啣蝶)」이라는 말이 있다.[33] 여기서 함선이란 매미를 문다는 뜻이고, 함접은 나비를 문다는 뜻이다. 즉, 고양이를 「매미를 문 녀석」, 또는 「나비를 문 녀석」이라 불렀던 것이다. 구본현[34]과 김경[35]은 고양이가 두 입술을 앙다물면 입 주위의 검은 털이 꼭 매미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했다.

명나라 왕지견(王志堅)은 그의 저서 『명구문신표이록(名句文身表異録)』에서 당나라 경화공주(瓊花公主)가 키운 흰고양이를 함선노(銜蟬奴)라 하였고,[36] 또 송나라 이황(李璜)은 「고양이를 보내다(送猫)」에서 "함선의 털빛은 하얗기가 연유보다 더하고, 솜 무더기도 그것만은 못하다(銜蟬毛色白勝酥, 搦絮堆緜亦不如)에서 보듯이 고양이를 함선이라 했다.[37] 또 북송 시인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은

32) 김하늬(2018) 『朱彝尊 前後期詞의 창작 양상 변화』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39에서 재인용.
33) 김경(2019) 「한문학에서의 '고양이[猫]' 名称과 別称에 대한 考察」 『한국한문학연구』 제74집, 한국한문학회, p.290.
34) 구본현(2014) 「서화시에 나타난 동물형상과 그 의미」 『동방한문학』 제61집, 동방한문학회, p.112.
35) 김경(2019) 앞의 논문, p.290.
36) 김경(2019) 앞의 논문, p.290에서 재인용.
37) 김하늬(2018) 앞의 논문, p.213.

〈그림 2〉 일본 우타가와 구니요시(歌川国芳: 1798-1861)의 「賢女烈婦伝」에서 나비를 물고 있는 고양이

「걸묘(乞猫)」에서 "듣자하니 고양이가 장차 새끼를 몇 마리 낳을 것이라니, 생선 사서 버들가지에 꿰어 함선(銜蟬)을 모셔와야겠네(聞道貍奴将数子, 買魚穿柳聘銜蟬)."라 하였다.[38]

이처럼 고양이를 나비의 뜻이 담긴 함선이라 했다. 그리고 조선후기 지식인 조재삼이 황정견의 시 중 「물고기 사다가 버드가지에 꿰어 함선을 불러야겠네(買魚穿柳聘啣蟬)」를 인용하고 주석에다 「고양이는 마치 나비를 물고 있는 것 같다(猫名似今啣蝶也)」라고 하였듯이[39] 조선에서도 중국에서 고양이가 매미 또는 나비와 관련된 「함선」과 「함접」이라 불리는 별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르는 것은 원숭이의 납이 아니라 Butterfly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양이를 나비(Butterfly)라 부르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고양이의 본능적 행동이다. 수의학자 무토 마코토는 고양이가 나비, 잠자리, 벌레 등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그 때 동작이 뒷발로 서서 앞발을 들고 그것들과 노는 장면이 목격된다고 한다.[40] 마치 그 모습이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에 평화를 느낀 사람들은 고양이가 나비와 매미를 좋아하는 동물이라 하여 영어에 Butterfly Cat,

38) 김하늬(2018) 앞의 논문, p.213.
39) 김경(2019) 앞의 논문, p.292에서 재인용.
40) 武藤真(1994) 前掲書、p.151.

그리고 중국에는 함선과 함접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 중 나비가 선호되었던 것은 매미보다 나비가 움직여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평온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양이가 나비를 좋아하여, 그것만을 보면 좋아 날뛰는 동물로 인식하여 고양이를 나비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한 쌍이 된 고양이와 나비를 길상의 의미로서 해석하는 묘접사상(猫蝶思想)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이다. 「묘접」이란 고양이와 나비를 일컫는 말로 흔히 중국에서는 모질(耄耋)이라고도 한다. 「마오(耄)」란 고양이 '묘(猫)'의 다른 말이며, 나이 칠십을 뜻한다. 그에 비해 「디에(耋)」란 나비 '접(蝶)'의 다른 말이며, 나이 팔십을 뜻한다. 이 두 개가 합하면 7,80세의 장수 노인을 의미한다. 「모질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이 고양이와 나비를 그려 넣은 묘접도(猫蝶図)이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겠다. 변상벽(卞相璧)의 「묘접도(猫蝶図)」, 김홍도(金弘道)의 「황묘농접도(黃猫弄蝶図)」, 김정희(金正喜)의 「모질도(耄耋図)」등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태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고양이를 부를 때는 물론 나비가 없다. 고양이가 홀로 있어서는 묘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비야"라고 불러줌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양이만 있으면 한 쌍의 묘접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수를 기원할 수 있었다. 즉, 우리의 선조들은 홀로 있는 고양이를 말로서 나비를 첨가함으로써 한 폭의 모질도를 그렸던 것이다. 이처럼 고양이를 나비라 부르는 배경에는 고양이가 나비를 좋아하는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함께 있으면, 평온과 장수라는 길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고양이를 나비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한국 고양이는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나비가 되어야 했다.

3. 중국의 고양이 별칭

중국의 고양이도 울음소리에 의해 고양이 이름이 지어진 것 같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인들은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먀오 먀오」라고 들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먀오라고 발음나는 苗를 사용하였고, 곡식 또는 싹과 구분하기 위해 그것에다 벌레 치(豸)자를 붙여 貓 자를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이같은 민간의 순수한 명칭 발생에 무게를 두지 않고, 어려운 길을 택하여 많은 해설들을 낳았다.

먼저 고양이의 「묘(猫)」에 대해 『강희자전(康熙字典)』에는 다음과 같이 흥미롭게 해설을 하고 있다. 즉, 「고양이(貓)는 살쾡이(貍)와 동속이다. 쥐를 잡는 짐승. 쥐는 자주 곡식(苗)을 해치고, 고양이는 쥐를 잘 잡기 때문에 글자가 곡식 묘(苗)에 따르고, 또 이를 간단히 묘(猫)로 쓴다」고 했다.[41] 그러한 내용이 『본초강목(本草綱目)』(권51)에도 보인다.[42] 그것에 의하면 「쥐는 피해를 끼치는데, 고양이(貓)가 그것을 잡는다. 그러므로 자는 곡식 묘(苗)에 따른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흔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猫」는 「貓」의 약자이며, 그 글자의 핵심에 「苗」가 있는 것은 그것을 쥐가 해를 끼치는데, 이를 잡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貓」 자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처럼 이 글자 안에는 고양이가 곡식을 수호하는 동물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되어있다.

김경의 연구에 의하면 고양이는 묘(猫)라는 호칭 이외에 오원(烏円), 함선(銜蟬 또는 啣蝶), 리노(狸奴), 소리노(小貍奴), 가리(家狸), 소산예(小狻猊), 어토(於菟), 몽귀(蒙貴), 전서장(田鼠将) 등 다양한 별칭들이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어는 표의문자인 만큼 그 속에는 중국인들의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다. 그러한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고양이의 습성이다. 여기에 속하는 말이 몽귀, 전서장이

41) 木村喜久弥(1978)『ネコ その歴史、習性、人間との関係』法政大学出版、p.3에서 재인용.

42) 木村喜久弥(1978) 前掲書、p.3에서 재인용.

다. 이것은 모두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령 몽귀는 「도움을 받다」는 의미의 말인 「蒙」에 「貴」를 붙였다는 것은 고양이를 마음껏 높인 경칭이라 할 수 있다. 밭 쥐를 잘 잡는 장수라는 의미의 이름인 전서장(田鼠将)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생겨난 말이다.

이처럼 고양이가 귀한 신분의 장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농사와 관련이 있다. 『예기(礼記)』에 의하면 음력 12월에는 농사에 관련된 여덟 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사례(蜡礼) 또는 사제(蜡祭)라 하는데, 이때 여덟 신 중에 하나가 고양이이다. 고양이가 제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경(詩経)』에 의하면 고양이가 밭의 쥐를 먹고, 호랑이는 밭의 돼지를 잡아먹기 때문에 호랑이와 함께 신으로 모셔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고양이는 몽귀와 전서장이라는 경칭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는 생김새이다. 가장 대표적인 별칭이 오원이다. 오원에 대해 구본현과 김경[43], 손찬식[44] 등은 일반적으로 아침과 저녁에는 눈이 맑고 둥근데 비하여 오후가 되어서는 눈이 가늘어서 마치 실과 같아지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성격이 왜 오원이어야 하는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황윤석(黃胤錫: 1724-1776)의 해석에 일리가 있다. 그는 오원을 고양이의 울음소리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았다.[45] 즉, 고양이 우는 소리를 「오원」으로 표기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필자는 오원의 「烏」는 검다는 의미이고, 「원(円)」은 둥글다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 검은 고양이를 일러서 하는 말이라고 본다. 일본 최초의 고양이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우다천황(宇多天皇: 867-931)의 일기 『관평어기(寛平御記)』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는 엎드리면 둥글게 되어 다리와 꼬리가 보이지 않아 마치 검은 구슬과 같다(伏臥時. 団円不見足尾. 宛如堀中

43) 김경(2018) 「조선후기 류서에서의 고양이 기록과 그 의미」『Journal of Korean Culture』 41집,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pp.301-302.

44) 손찬식(2008) 「한국한문학에 표상된 고양이의 성격」『인문학연구』 제35권 제1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p.67.

45) 김경(2019) 앞의 논문, p.287.

〈그림 3〉 명나라 심주(沈周: 1427-1509)의
「오원도」

之玄璧)」고 했다.[46] 그야말로 「오원」을 잘 나타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의 유본학(柳本学)이 고양이를 의인화하여 쓴 소설 「오원전(烏円伝)」에서도 그 인물은 피부가 검은데, 「배가 부르면 곧 몸을 굽혀 감아말아서 졸곤 한다」고 표현에서 보듯이 그것은 모양이 검으면서 몸을 말아서 누워있는 모양에서 나온 별칭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그런 한편 동물과 비유되는 것도 있다. 가령 함접과 함선은 나비와 매미를 문 모습에서 나온 별칭이지만, 소산예는 작은 사자와 같다는 것이며, 가리는 집에서 키우는 살쾡이라는 뜻이며, 리노, 소리노도 살쾡이와 같은 동물과 닮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살쾡이 몸에 호랑이 얼굴이다(貍身虎面)」는 표현이 있다. 그리고 어토(於菟)도 호랑이와 닮았기 때문에 생겨난 별칭이다.

특히 고양이는 호랑이와 비유되는 일이 많았는데, 모양은 같으나 차이는 털, 귀, 눈동자에서 찾았다. 즉, 기원전 2세기경의 문헌 『이아(爾雅)』에 「호랑이 털을 훔친 것을 고양이라 한다(虎窃毛謂之虦貓)」라 하면서, 「소(疏)」에 「호랑이의 짧은 털을 가진 것이 고양이이다(虎之浅毛者, 別名虦貓)」라고 했다.[47] 그리고 1771년 청대의 서정(徐鼎)이 저술한 『모시명물도설(毛詩名物図説)』에도 고양이를 「호

46) 桐野作人(2017)『猫の日本史』洋泉社、p.15.
47) 김경(2019)「한문학에서의 고양이 명칭과 별칭에 대한 고찰」『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p.279.

랑이와 비슷한데 털이 짧다(貓似虎浅毛者也)」라고 했다.[48] 즉, 호랑이와 같은데, 털이 짧은 것이 고양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청대의 주이준(朱彝尊: 1629-1709)은 하존사(何尊師)의 말을 빌어 '고양이는 호랑이와 비슷하지만 유독 귀가 크고 눈동자가 노란빛이여서 서로 같지 않다(猫似虎, 独有耳大眼黄不相同)이라 하였다.[49] 이처럼 고양이를 털, 귀, 눈동자를 제외하면 호랑이와 거의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양이를 호랑이와 가장 가깝거나 호랑이에게서 파생된 동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양이를 집 호랑이라는 뜻으로 가호(家虎)라고 하기도 했다.

셋째는 불교와의 관계이다. 이것은 「불노」라는 별칭을 두고 한 말이다. 왕초동(王初桐:1729-1821)의 『묘승(猫乘)』에 의하면 고양이 특유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사람들이 염불하는 소리로 여겼다는 기술이 있다.[50] 이처럼 고양이를 불성이 있는 동물로 보고, 그것이 내는 소리가 마치 염불을 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그와 관련하주이준-여 불노라는 명칭은 명나라 때 태후가 기른 고양이가 불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도 하고, 또 청나라 때 황지준(黃之駿)이 기른 고양이가 종일 잠만 잤고 자면서 내는 소리가 불경을 외우는 소리와 유사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도 한다.[51]

이처럼 중국인에게는 색깔로는 백묘와 흑묘가 있고, 모양은 사자, 호랑이, 살쾡이와 같고, 성격으로는 매미와 나비를 좋아하고, 습성으로는 농사에 피해를 주는 쥐를 잡아주는 고마운 동물이며, 종교성으로는 불성이 있는 동물의 이미지가 있었다.

48) 김경(2019) 앞의 논문, p.279.
49) 김하늬(2018) 앞의 논문, p.238.
50) 김경(2019) 앞의 논문, p.279.
51) 김경(2019) 앞의 논문, p.279.

4. 일본의 고양이와 호랑이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어 사전『광사원(広辞苑)』에 의하면 고양이의「네코」는 고양이 우는 소리에 접미어「코」가 붙어「네코」가 되었다고 설명했다.[52]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고대 일본인들은 고양이가「네우 네우」라고 운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고양이를「네우 네우」라고 우는 녀석이라 하여「네우코」라 한 것이 오늘날의 표준어「네코」가 탄생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인들의 귀에는「네우 네우」가 아니라「냐앙 냐앙」「냐아 냐아」하고 우는 것으로 들린다. 그리하여 고양이를「냥코」라고도 했다. 우리의 야옹이와 같은 말이다. 이러한 설명이 자연스럽다. 즉, 일본도 우리와 같이 원래 울음소리에서「네코」라는 이름이 탄생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헤이안(平安) 중기 때 편찬된『화명류취초(和名類聚抄)』에는 고양이를「네코마(禰古万)」로 표기해놓고 있다.[53] 이것에 의하면「네코」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마」가 떨어져 나가 생겨난 말이었다. 그러나 에도시대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해석을 거부하고,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가했는데, 그것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부류가 있었다.

첫째는 쥐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민간에서는 고양이가 쥐를 보면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네카로(鼠軽)」라고 하던 것이「네코」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에도시대가 되면 쥐와 결부시킨 해석이 대량으로 나타난다. 게이쥬(契沖: 1640-1701)는『원주암잡기(円珠庵雑記)』에서「네코마란 네코마치(鼠子待)가 생략되어 생긴 말」일지도 모른다고 추정했다.[54] 이에 비해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 -1725)는 그의 저서『동아(東雅)』에서「네」는「네즈미(쥐)」의「네」이며,「코마」는 무서워한다는 의미의 말이라고 해석했다. 카이바라 에키겐(貝原益軒: 1630-1714)은 그의 저서『일본화명(日本和

52) 新村出編(1980)『広辞苑』岩波書店、p.1722.

53) 木村喜久弥(1978)『ネコ その歴史、習性、人間との関係』法政大学出版、p.3에서 재인용.

54) 木村喜久弥(1978) 前掲書、p.6에서 재인용.

名)』에서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여 포식하는 동물이므로 원래는 「네코무(鼠好む)」이었는데, 이것에서 「무(む)」가 탈락되어 「네코」가 되었다고 했다.[55] 이 같은 설명은 그의 저서 『일본석명(日本釈名)』의 「중수(中獣)」편에서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동승(東勝)』의 「십팔축수(十八畜獣)」에서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이처럼 고양이가 쥐를 잘 잡는 동물이라는 인식 속에 어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둘째는 잠을 잘 자는 동물로 보는 관점이다. 실제로 고양이는 호랑이와 같이 하루에 약 16시간 잔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은 일찍부터 있었던 것 같다. 가령 헤이안시대(平安時代) 미나모토노 시타고(源順: 911-983)가 만든 사전 『화명초(和名抄)』에 하루 종일 잘 잔다는 뜻에서 「네코무(寝子む)」라는 표현되어 있다.[56] 만일 「네코무」가 어원이라면 여기에서 「네코마(寝子ま)」에서 「네코」가 되는 것이 된다.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1697-1769)도 『원주암잡기(円珠庵雑記)』의 서두에 「고양이(네코)는 네무리케모노(睡獣)를 생략한 것이 아닌가」고 추정했다.[57] 즉, 잠을 잘 자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다는 의미인 「네(寝)」에서 유래하여, 녀석이라는 의미인 「코(子)」를 붙여 「네코」가 된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민간에서 「네코무(寝好む)」, 「네코무(寝小魔)」에서 네코마로, 다시 네코가 되었다는 것도 모두 잠을 좋아하는 습성에서 생겨난 해석이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생겨난 것이 유녀를 고양이에 빗대어 네코(寝子)라 하였다. 이때 네코란 잠을 같이 자는 유녀라는 뜻이다.

셋째는 습성과 고향을 합친 말로 보는 해석이다. 즉, 이는 고양이가 잠을 잘자는 습성과 그것이 고려에서 온 동물이라는 것이 합쳐져 생긴 「네코마(寝高麗)」라는 말이 네코의 어원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설은 『대언해(大言海)』라는 일본어 사전에도 수용되어 「네코마」는 「네코마(寝高麗)」라는 뜻으로 한국에서 도래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58] 즉, 이 말은 잠 잘 자는 고려에서 들어

55) 木村喜久弥(1978) 앞의 책, p.5에서 재인용.
56) 木村喜久弥(1978) 앞의 책, p.4에서 재인용.
57) 木村喜久弥(1978) 앞의 책, p.4에서 재인용.
58) 木村喜久弥(1978) 앞의 책, p.4에서 재인용.

온 동물이라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에도시대의 지식인들에게 고양이란 쥐를 잘 잡고 잠을 잘 자는 고려에서 들어온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넷째, 닮은 동물에 비유하여 생긴 호칭도 있었다. 구마모토(熊本)의 국학자 나카지마 히로타리(中島広足: 1792-1864)는 『강원수필(橿園随筆)』에서 「네코」란 「누에」라는 요괴의 머리와 닮아서 처음에는 「누에코」라고 하던 것이 나중에 네코가 되었다고 해석했다.[59] 여기서 누에란 「鵺」, 「鵼」, 「夜鳥」라고도 표기하는데, 그것의 머리가 부엉이 머리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그 모양이 고양이와 닮았다는 것이다.

〈그림 4〉 다카하시 히로아키
(高橋弘明:1871-1945)의
「공을 가지고 노는 백묘와 흑묘」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보다 일본인들은 고양이를 「다마(玉)」 또는 「도라(虎, 寅)」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전자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마란 구슬이란 뜻이다. 그것으로 인해 민간에서는 고양이가 「구슬과 같이 둥글게 몸을 말아 자기 때문에」, 또 「털실 또는 털실로 만든 공을 좋아하기 때문에」생긴 말이라는 견해가 있다.

일본인들은 「다마」도 좋아하지만 「도라」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했다. 도라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호랑이란 뜻이다. 어찌하여 일본인들은 그렇게 불렀을까?

여기에 대해 일찍 15세기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의 일본어 사전이라 할 수 있는 『하학집(下学集)』에 그 해답이 있다. 즉, 그것에

59) 木村喜久弥(1978) 前掲書、p.8에서 재인용.

의하면 “고양이는 털 색깔이 호랑이와 닮아서, 이 때문에 세간에는 호랑이의 애칭인 「오토(於兎)」라고 부르고 있다. 고양이도 「오토」라고 부르면 좋아한다.”고 했다.[60] 이처럼 15세기에 이미 일본에서는 고양이를 호랑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6세기 중엽에 성립된 『운보색엽집(運歩色葉集)』의 「이(禰)」편에서도 고양이를 네코(如虎)라고 표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한 설명은 에도시대의 문헌 『물류칭호(物類称号)』의 「삼동물(三動物)」편에서도 보인다. 즉, 이것에서 「지금 생각건대 고양이를 ‘도라’라고 부르는 것은 그 모양이 호랑이와 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다.[61] 이와 같이 고양이가 호랑이로 불린 것은 상호 유사성 때문이었다.

실제로 고양이는 호랑이와 닮은 점이 한 두 가지 아니다. 가령 모두 조상이 프세우다엘루루스에서 시작된다는 점이고, 자기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번식기나 육아기 이외에는 단독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빨이 30개 가지고 있는 것도 같고, 평균수명이 15년인 것도 같으며, 점프력과 순발력이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졌다는 것도 같다.

그러나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다. 그러므로 일본의 지식인들은 호랑이를 「고양이 같고, 크기는 소와 같고, 황색바탕에 검은 색 줄무늬, 톱니 이빨 갈고리 손톱, 수염이 건장하고 뾰족하며, 혀의 크기가 손바닥만 하다(状如猫 而大如牛, 黄質黒章, 鋸牙鈎爪 鬚健而尖舌大如掌)」라고 한 『본초강목(本草綱目)』의 설명을 통해 호랑이를 상상했다. 그러므로 일본 화가들은 고양이를 통해 호랑이 그리는 연습을 했다.[62] 일본문학 연구자인 최경국은 일본인에 의해 그려진 호랑이의 대부분이 호랑이를 닮지 않고 고양이를 닮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았다.[63] 일본의 속담에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렸다」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그러한 고충에서 생겨난 말임에 틀림없다.

---

60) 田中貴子(2016)『猫の古典文学誌 鈴の音が聞こえる』講談社、p.15에서 재인용.
61) 平野杏奈(2014)『言葉の由来と成立ー「猫」と「ねこ」からー』筑波大学修士学位論文、p.10.
62) 최경국(2004) 「일본 호랑이 그림의 계보-四神図에서 画譜類까지-」『일본연구』 22,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일본연구소, p.154.
63) 최경국(2004) 앞의 논문, p.163.

호랑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부터 에도시대(江戸時代) 초기에 걸쳐 성립된 『오토기조오시(御伽草子)』에서는 「고양이는 호랑이의 자손인데, 일본이 작은 나라이어서, 그에 맞추어 몸을 줄여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서 정착한 것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64]

이같은 설명에는 고양이가 호랑이계에 속하기 때문에 호랑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인식도 함께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고양이를 호랑이라고 속이는 웃지못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역사학자 후지와라 시게오(藤原重雄)에 따르면 에도시대 때 료고쿠바시(両国橋) 근처에서 호랑이를 보여준다고 하며 사람들을 끌어 모아 돈을 버는 흥행꾼들이 있었다 한다. 이들은 대마도에서 잡은 「야마네코(山猫)」라는 야생 고양이를 호랑이라 하고, 시끄럽게 도구를 두드려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을 속였다고 한다.[65]

이처럼 일본에서 고양이는 호랑이였다. 그러므로 고양이를 「도라」라고 불렀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중의 하나인 「도라에몬(寅衛門)」도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이다. 일본의 속담에 「고양이는 호랑이 속(마음)을 모른다」, 「고양이도 되고, 호랑이도 된다」고 한 것도 모두 고양이가 호랑이와 동속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는 고양이가 곧 작은 호랑이였고, 호랑이가 곧 큰 고양이이었던 것이다.

5. 마무리

지금까지 한중일의 고양이 명칭과 별칭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데 3국인들은 대략 5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첫째는 울음소리이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64) 市古貞次(1958)『御伽草子』岩波書店、pp.301-302.

65) 藤原重雄(2018)「東大所蔵資料から見る鼠を捕る益獣としての猫」『淡青』東京大学広報室、pp.6-7.

그것을 「야옹 야옹」운다고 하여 「야옹이」가 되었고, 중국은 「먀오 먀오」라고 운다 하여 「먀오」라고 하던 것이 「마오」가 되었으며, 일본은 「네우 네우」라고 운다하여 그것에다 코(子)를 붙여 「네우코」라 하던 것이 「네코」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는 다른 동물 이름으로 부른다는 점이다. 여기에 한국인들은 고양이가 나비를 좋아하고, 또 길상을 의미하는 묘접사상(猫蝶思想)에 기반하여 고양이를 '나비'라고 불러 줌으로써 장수를 기원했다. 그에 비해 중국인은 고양이가 나비 또는 매미를 잡아먹는다 하여 함선 또는 함접이라 했다. 그에 비해 일본은 호랑이와 같은 동물이라 하여 도라라고 하였던 것이다.

셋째는 모양이다. 소산예는 사자에서, 가호는 호랑이에서, 가리와 리노, 소리노는 살쾡이에서 생겨난 별칭이었다. 그 중 가리는 한국과 일본에서도 받아들여져 고양이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 정약용도 고양이를 리노라고 표현한 시가 있다.

넷째는 습성과 성격이다. 한국인은 쥐를 잘 잡는 귀하고 괴이한 동물이라고 하여 고양이를 「고이」 또는 「괴양리(怪様狸)」라는 해석이 있었다. 그에 비해 중국도 몽귀와 전서장이라는 경칭은 바로 그러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한 점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네코마치(鼠子待)」, 「네코무(鼠好む)」에서 네코라는 말이 유래하였다는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는 한국과 중국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고양이를 잠자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라는 뜻에서 「네무리케모노(睡獣)」, 「네코무(寝好む)」, 「네코무(寝小魔)」에서 「네코」가 탄생했다고 보는 해석이다.

다섯째는 고향을 나타내는 말로도 해석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고양이의 기원을 페르시아의 랍비에서 유래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설이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은 고려에서 온 동물이라는 「네코마(寝高麗)」설이 있다.

이와 같이 고양이는 3국 모두 쥐 잡는 동물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국인에게는 「냐옹 냐옹」하고 울며, 귀하고 괴이한 야옹이이자 나비이라면, 중국은 「먀오 먀오」라고 울면서 사자, 호랑이, 살쾡이를 닮은 동물로서 매미와 나비를 좋아하며, 때로는 불성을 가진 동물이었다. 그에 비해 일본에서 고양이란 「네우 네

우」라는 울음소리를 내는 고려에서 온 잠꾸러기 작은 호랑이였다.

참고문헌

구본현(2014)「서화시에 나타난 동물형상과 그 의미」『동방한문학』 제61집, 동방한문학회, p.112.

김경(2018)「조선후기 류서에서의 고양이 기록과 그 의미」『Journal of Korean Culture』 41집,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p.301-302.

____(2019)「한문학에서의 '고양이[猫]' 名称과 別称에 대한 考察」『한국한문학연구』 제74집, 한국한문학회, p.290.

김동진저・조항범 평석(2001)『선인들이 전해 준 어원 이야기』 태학사, p.99.

김창용(1999)『한국의 가전문학』 태학사, pp.1-363.

김하늬(2018)『朱彝尊 前後期詞의 창작 양상 변화』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39.

박지원(2016)『면양잡록』 권3, 당진문화원, p.84.

손찬식(2008)「한국한문학에 표상된 고양이의 성격」『인문학연구』 제35권제1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p.67.

이근열(2013)「부산 방언의 어원 연구(1)」『우리말연구』 35권, 우리말학회, p.190.

이병근(2004)「고양이의 어휘사」『어휘사』 태학사, p.117.

이상인(1941)「고양이의 시골말」『한글(9)』 한글학회, p.568.

이우석(2007)「개형과 고양이형 인간」『부산일보』(2007.06.12), 30면.

최경국(2004)「일본 호랑이 그림의 계보-四神図에서 画譜類까지-」『일본연구』 22,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일본연구소, p.154.

市古貞次(1958)『御伽草子』岩波書店、pp.301-302.

木村喜久弥(1978)『ネコ その歴史、習性、人間との関係』法政大学出版、p.8.

桐野作人(2017)『猫の日本史』洋泉社、p.15.

新村出編(1980)『広辞苑』岩波書店、p.1722.

田中貴子(2016)『猫の古典文学誌 鈴の音が聞こえる』講談社、p.15

平野杏奈(2014)『言葉の由来と成立-「猫」と「ねこ」から-』筑波大学修士学位論文、p.10.

藤原重雄(2018)「東大所蔵資料から見る鼠を捕る益獣としての猫」『淡青』 東京大学広報室、pp.6-7.

武藤真(1994)『猫は三年の恩を三日で忘れるは本当か？-ネコのオモシロことわざ学-』PHP研究所、p.151.

李宏敏・劉楠・張春波(2015)『俄語教学理論与実践創新研究』神華出版社、p.88.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nkview/nknews/200510/87_1.html (검색일:2020.06.28)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446.html (검색일:2020.05.25)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dir (검색일:2020.06.28)

青空文庫 http://www.aozora.gr.jp (閲覧日:2020.06.30)

〈Abstract〉

Origins of the Names of the East Asian Cat

No, Sung-Hwan

There are five origins of cat's names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first is the theory that the origin of the cat's name in Korea, China and Japan lies in the cat's cry. The cat was named after the cry of a cat called "Meow Meow" in Korea, "Miao Miao" in China, and "Neu Neu" in Japan. The second origin came from calling a cat by another animal's name. Koreans wished for a long life by calling cats 'Butterflies'. Japan called them 'Tora' because they were animals like tigers. Third, the name was given to describe the appearance of a cat. "Sosanye" was a nickname for a cat from a lion, "Gaho" from a tiger, and "Gari" and "Lino" from a wildcat. It is also said that another origin stems from a word that expresses the characteristics of cats. All of Korea, China and Japan believe it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it is a strange animal that catches mice well. In Japan, however, there is an interpretation that "Neko" has emerged from a cat's sleeping habit. Finally, there is a story that it stemmed from the name of a remaining Koryo people in Japan.

Key words : koi(高伊), butterfly, tiger, mongkwi(夢貴), nekoma(寢高麗), a print of butterfly and cat

투 고 일 : 2020년 09월 29일
심 사 일 : 2020년 10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1월 03일